인권정보자료실
Ic1.3.6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17000-23740-68-9521

유엔사회개발정상회의 참가보고서

(1995. 3. 6~12, 코펜하겐)

1995. 3

외 무 부
국 제 연 합 국

유엔사회개발정상회의 참가보고서
1995·3
외 무 부

인권정보자료실
Ic1.3.6
C6-3-1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17000-23740-68-9521

유엔사회개발정상회의 참가보고서

(1995. 3. 6～12, 코펜하겐)

1995. 3

외 무 부
국 제 연 합 국

〈로 고〉

○ 사회개발정상회의의 로고는 서로 연관되며 발전단계가 다른 세사람이 태양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협력과 희망을 표현하는 상징임.

○ 손에 손잡고, 조금씩 조금씩, 각 국가마다, 모든 사람들이 더높은 생활수준과 완전 고용의 달성이라는 유엔헌장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을 상징함.

목　　차

Ⅰ. 회의개관 3

1. 회의개요 3

가. 명　칭 3

나. 기　간 3

다. 장　소 3

라. 회의주제 3

마. 회의성격 3

2. 개최경위 4

3. 회의 참가규모 5

4. 우리대표단 구성 5

5. 한국 NGO 참가자 7

6. 특별행사 7

Ⅱ. 회의의제 및 조직·일정 9

1. 회의의제 11

2. 회의조직 및 일정... 12

3. 회의의장단 선출 14

4. 회의진행방식 14

Ⅲ. 회의경과 15

1. 고위급대표 회의 (3.6-10) 17

가. 개 회 식 17

나. 본 회 의 18

다. 세계여성의 날 (3.8) 기념 특별행사 23

2. Main Committee (3.6-10) 24
가. 회의진행 24
나. 주요 합의사항 25
3. 정상회의 (3.11-12) 29
가. 정상환영식 29
나. 각국정상 연설 29

Ⅳ. 코펜하겐 선언 및 실천계획 37
1. 채택경위 39
2. 주요내용 39
가. 「선언」 요지 40
나. 「실천계획」 요지 43

Ⅴ. 우리대표단 활동 49
1. 세계적 차원에서의 정상외교 전개 51
2. 외무장관 활동 52
3. 보건복지부장관 활동 52
4. 사회개발정상회의 부의장국 피선 53
5. 「선언」 및 「실천계획」 토의참여 54
6. 기타 활동 56

Ⅵ. 평가 및 후속조치 57
1. 종합 관찰 및 평가 59
2. 후속조치 60

Ⅶ. 첨부자료 61
1. 코펜하겐 선언 및 실천계획 63
2. 김영삼 대통령 연설문 (국.영문) 163
3. 서상목 보건복지부장관 연설문 (국.영문) 173
4. 유엔사무총장 및 주요 각국고위급대표 연설문 189
5. 유엔사무총장 및 주요 각국정상 연설문 223

I 회의개관

I. 회의 개관

1. 회의개요

가. 명 칭 : 유엔 사회개발정상회의
(WSSD : U.N. 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

나. 기 간 : 95.3.11(토)-12(일), (95.3.6-10 : 고위급회의)

다. 장 소 : 코펜하겐 (덴마크), Bella Center

라. 회의주제

- o 빈곤퇴치 (eradication of poverty)
- o 생산적 고용확대 (promotion of productive employment)
- o 사회통합 증진 (enhancement of social integration)

마. 회의성격

- o 사회개발정상회의는 90년대 유엔 주관으로 개최되는 세계적 규모의 개발회의중의 하나로서, 이러한 회의중에는 아동정상회의 (90년), 리우 환경회의 (92년), 세계인권회의 (93년), 소도서국가의 지속개발회의 (94년), 인구와 개발회의 (94년), 세계여성회의 (95년), 인간정주회의 (96년) 등이 있음.
- o 금번 사회개발정상회의가 종전의 세계 회의와 크게 다른점은 이전의 회의는 특정주제와 개발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반해 사회개발정상회의는 유엔 창설 50주년에 맞추어 "새로운 유엔탄생"이라는 목표를 겨냥하여 냉전종식후의 세계질서에 맞는 새로운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보다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의 회의라는데 있음.

2. 개최경위

o 1991년 유엔경제사회이사회 (ECOSOC) 사회위원회 Juan Somavia 의장 (주유엔칠레대사)의 제안으로 사회개발문제가 공식 제기되면서, 동 제기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Somavia 대사를 사회개발정상회의 개최 가능성 검토를 위한 유엔 사무총장의 특별대표 (Special Representative)로 임명하였음.
  - 특별대표는 주요국과의 협의 결과, 사회개발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를 확인

o 92.1월 유엔안보리 정상회의 (미, 영, 프, 러시아, 중국) 및 92.9월 제10차 자카르타 비동맹 정상회의에서도 사회개발정상회의의 개최를 지지하였음.

o 92.7월 ECOSOC 본회의는 제46차 유엔총회 결의 46/139 (사회개발)에 따라 사회개발정상회의 개최를 제47차 유엔총회에 권고하는 결의안 (1992/27)을 채택하였으며, 우리나라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였음.

o 92.12월 제47차 유엔총회는 사회개발정상회의 개최를 결정하였으며 (총회결의 47/92), 우리나라는 이때에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였음.
  -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이 참석하는 정상회의로서 1995년초 개최를 결정
  - 덴마크 대표의 정상회의 유치제의를 수락

o 93.4월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사회개발정상회의를 95.3.6-12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키로 결정하였음.

3. 회의 참가규모

가. 정부대표 : 193개국 (2,700여명)

  o 국가원수, 정부수반 참석 : 118개국
  o 부통령 참석 : 5개국

나. 유엔 산하기구 및 국제기구 : 2,100여명

  o 유엔 직속기구 : 14
  o 전문기구 : 10
  o 정부간 기구 (IGO) : 29
  o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다. 민간단체 (NGO) : 5,100여명

라. 특별참석인사 : Hillary Clinton 미 대통령부인 (사회개발정상회의 특별연사로 초청)

4. 우리대표단 구성 (28)

o 수석대표	대 통 령	김 영 삼
o 대 표	외무부장관	공 로 명
(15)	통상산업부장관	박 재 윤
	보건복지부장관	서 상 목
	과학기술처장관	정 근 모
	주유엔대사	박 수 길
	주덴마아크대사	이 원 호
	합참의장	김 동 진

	민자당 총재비서실장	김 한 규
	대통령 경호실장	김 광 석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한 이 헌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유 종 하
	대통령 공보수석비서관	윤 여 준
	외무부 의전장	문 동 석
	대통령 의전비서관	김 석 우
	외무부 국제연합국장	함 명 철
o 실무대표 (12)	국무총리실 외교안보심의관실과장	김 일 수
	외무부 인권사회과장	임 재 홍
	주유엔대표부 2등서기관	이 도 훈
	외무부 인권사회과 사무관	권 희 석
	외무부 인권사회과	우 인 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심의관	김 희 선
	보건복지부 장관비서관	허 정 회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사무관	배 진 철
	노동부 고용정책과 사무관	권 혁 태
	정무장관(제2)실 사무관	이 정 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연 하 청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실장	노 미 혜

5. 한국 NGO 참가자

* 「인간사회개발 한국포럼」(Korea NGO Forum for Social Development) 명칭하에 다수 NGO 단체들이 공동 참가하였는 바, 이중 주요 참가단체 및 참가인사는 아래와 같음.

  o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경실련)
    - 서경석 목사,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 이회선 한양대 교수, 곽창규 국제국장
  o 한국기독교 사회문제 연구원 (기사연)
    - 이선태 상임연구원, 박종아 연구원
  o 참여 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참여연대)
    - 이삼열 숭실대교수, 김대환 인하대 교수, 이대훈 사무국장
  o 환경운동연합
    - 최열 사무총장, 김상종 서울대교수
  o 기타주요인사
    - 김정숙 전 정무(제2) 차관
    - 강원룡 크리스찬 아카데미 원장
    - 박종삼 사회복지협의회 국제협력위원장 (숭실대 교수)

6. 특별행사

o NGO Forum '95 (3.3-12, 코펜하겐 홀멘섬)
  - 사회개발에 관심있는 NGO는 모두 참가가능하며, 사회개발과 관련된 회의, 세미나, 워크샵, 강연회, 전시회, 연극, 영사회 등 다양한 NGO 행사를 개최하였음.

o 상기외에 사회개발정상회의 기간중(3.6-12) 많은수의 NGO단체들이 정상회의장인 "Bella Center"와 도심에 위치한 "Eigtveds Pakhus"에서 여러 성격의 모임 및 행사를 개최하였음.

Ⅱ. 회의의제 및 조직·일정

Ⅱ. 회의의제 및 조직 . 일정

1. 회의의제 (A/CONF.166/PC/L.26)

구 분	의 제 내 용	관 련 문 서
의제 1	개회식 (Inauguarl Ceremony)	
의제 2	의장 선출 (Election of the President)	
의제 3	의사규칙 채택 (Adoption of the rules of procedure)	A/CONF.166/2
의제 4	의제채택 및 기타 조직 문제 (Adoption of the agenda and other organizational matters)	A/CONF.166/1
의제 5	부의장등 선출 (Election of officers other than the president)	A/CONF.166/3
의제 6	회의일정 (Main Committee 설치 포함) (Organization of work, including establishment of the Main Committee)	A/CONF.166/3, 4, 6
의제 7	정상회의 대표 신임장 (Credentials of representatives to the Summit) (a) 신임장위원회 위원 임명 (Appointment of the members of the Credentials Committee)	A/CONF.166/3
의제 8	일반의견 교환 (General exchange of views)	
의제 9	국가원수.정부수반 회의 (Meeting of heads of State or Government)	
의제 10	정상회의 「선언」 및 「실천계획」에 관한 결의안 채택 (Adoption of the Summit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A/CONF.166/L.1, L.1/Corr.1, L.2, L.3, Add.1, Add.1/Corr.1, Add.2-7, A/CONF.166/L.5
의제 11	정상회의 보고서 채택 (Adoption of the report of the Summit)	A/CONF.166/L.4, Add.1
	주최국에 대한 감사 결의안 채택 (Expression of gratitude to the host country)	A/CONF.166/L.6
	폐회식 (Closure of the Summit)	

2. 회의조직 및 일정

구 분	일 자	시 간	내 용
준비회의	3.4(토)	15:00	Somavia 정상회의 준비위 의장 브리핑 - 전 참가국을 대상으로 회의운영에 관한 비공식 사전 협의회
	3.5(일)	15:00	77그룹 회의
고 위 급 대표회의	3.6(월)	10:00 -13:00	(Plenary) 개 회 식 - 유엔 사무총장 연설 - 덴마크 총리 개회사 - 의장단 선출 - 고위급대표 연설 (주제 : 사회개발을 위한 여건 조성)
		15:00 -18:00	(Plenary) 고위급대표 연설 계속 (Main Committee) 제1차 회의
	3.7(화)	10:00 -22:00	(Plenary) 고위급대표 연설 - 주제 : 빈곤퇴치 (Main Committee) 4개 W/G 구성, 동시 진행
	3.8(수)	10:00 -12:00	(Plenary) 고위급대표 연설 - 주제 : 사회개발에의 여성참여 증진 (Main Committee) 4개 W/G 진행
		12:00 -12:30	세계여성의 날 기념 특별행사 - 주제 : 세계여성에 대한 공약 - 부트로스-갈리 유엔사무총장, 힐러리 클린턴 미 대통령부인 등 연설
		15:00 -23:00	(Plenary) 고위급대표 연설 - 주제 : 사회개발에의 여성참여 증진 (Main Committee) 4개 W/G 진행

구 분	일 자	시 간	내 용
	3.9(목)	10:00 -23:00	(Plenary) 고위급대표 연설 - 주제 : 생산적 고용증대 (Main Committee) WG 4개 동시운영
	3.10(금)	10:00 -22:30	(Plenary) 고위급대표 연설 - 주제 : 사회통합 및 후속조치 (Main Committee) WG 및 전체회의에서 「선언」 및 「실천계획」 문안 합의
정상회의	3.11(토)	09:45	정상환영식 (Welcoming Ceremony)
		10:00 -13:30	정상연설
		13:30	정상기념촬영 (Auditorium)
		13:00 -15:00	각국정상을 위한 덴마크총리 주최 오찬 (Bella Vista)
		15:00 -18:00	정상연설 계속
		20:00 -22:00	각국 고위급대표를 위한 덴마크 개발협력부 장관 주최 만찬 (코펜하겐 시청)
		20:30 -23:30	각국정상을 위한 덴마크 여왕 주최 만찬 (크리스티안스보그 궁)
	3.12(일)	09:00 -14:00	정상연설 계속
		13:00 -15:00	각국정상을 위한 덴마크 총리 주최 오찬 (Bella Vista)
		15:00 -18:00	정상연설 계속
	3.13(월)	19:00- 3.13(월) 01:50	정상연설 계속
		01:50 -02:42	폐 회 식 - 정상회의 보고서 채택 - 「선언」 및 「실천계획」 채택 - 주최국에 대한 감사결의

3. 회의 의장단 선출

구 분	인원수	국 가 명	비 고
의 장 (President)	1	덴마크	Poul Nyrup Rasmussen 총리
부 의 장 (Vice-President)	27		
아 주	6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카타르	
서 구	6	호주, 캐나다, 독일, 스웨덴, 포르투갈, 안도라	
동 구	3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중 남 미	5	칠레, 쿠바, 파나마, 파라과이, 벨리세	
아 프 리 카	7	알제리, 이디오피아, 짐바브웨, 수단, 카메룬, 기네비소, 부르키나파소	
ex-officio	1	덴마크	Poul Nielson 개발협력부 장관
총 보고관 (Rapporteur-General)	1	튀니지	Sadok Rabah 사회부장관
Main Committee 의장 (Chairman)	1	칠 레	Juan Somavia 주유엔대사 (정상회의 준비 위원회 의장)

4. 회의진행방식

o 3.6-10간 고위급대표 회의기간중에는 Plenary (고위급대표 연설)와 Main Committee (선언 및 실천계획 문안 조정) 동시 병행개최

o 3.11-12간 정상회의 기간중에는 Plenary (정상연설)만 개최

Ⅲ. 회의 경과

Ⅲ. 회의경과

1. 고위급대표 회의 (3.6-10)

가. 개 회 식

o 3.6(월) 10:00 코펜하겐 Bella Center에서 Boutros-Ghali 유엔 사무총장의 개막연설로 개회, 의장단 선출 및 Poul Nyrup Rasmussen 덴마크 총리 환영연설, 의사규칙과 회의의제를 채택하였음.

1) Boutros-Ghali 유엔 사무총장 개막연설 요지

o 유엔창설 50주년에 즈음한 오늘날 국제사회는 "전인류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이라는 유엔헌장의 공약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음.

o 오늘날 세계경제는 전통적인 개인간 연대의 파괴, 모든국가 및 지역 공동체의 한계화 (marginalization), 빈부격차 확대 등의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같은 상황하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과제는 "collective social responsibility"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임.

o 범세계적 차원에서 모든 국가와 시민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는 새로운 사회적 계약이 요구됨.

o 개인에 대한 사회적 사회적 보호제공, 사회통합 증진, 사회적 조화 유지가 본인이 최우선 목표 (priority objectives)라고 부르는 것인 바, 이것이 오늘 이자리에서 본인이 토의하고자 하는 3가지 기본주제임.

o 우리 인류가 모든 위기가 불가피하다는 관념, 불평등, 국제사회의 분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국제사회의 미래를 위한 책임부담과 함께 범세계적 연대감 (global solidarity)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임.

2) Rasmussen 덴마크 총리 환영연설 요지

- o 우리 인류는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시작했으며, 과거에 국가안보에 촛점이 모아지던데서 인간안보 (security of people)의 근본적 중요성 쪽으로 관심이 전환되고 있음. 따라서 금번 정상회의도 인간안보에 촛점을 맞추어야 함.
- o 동 정상회의가 냉전종식 이후 새로운 국제협력의 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하며, 사람들에게 적절한 삶의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인간안보 및 사회발전을 유지해야 함. 이를 위해 적절한 수입과 고용, 교육, 보건, 주택, 평등, 법적보호, 인권을 보장해야 할 것임.
- o 동 정상회의의 진정한 의미는 회의가 끝난 후의 합의이행 여부에 달려 있는 바, 희망을 행동으로 전환시켜야 함.

나. 본 회 의

- o 3.6(월)-10(금)간 77그룹대표 (필리핀), EU 대표 (프랑스), 칠레, 말레이지아, 베네주엘라, 슬로바키아, 말리, 우크라이나, UNDP 총재, 노르웨이, 쿠웨이트, 이란, WHO 사무총장, 이태리, 독일, 한국, 바베이도스 순으로 각국 고위급대표 연설을 진행하였음.

1) 77그룹 대표 (Habito 필리핀 사회.경제기획장관) 연설요지

- o 모든 인간 및 모든 국가의 개발권 (right to development)이 강조되어야 하며, 동 정상회의의 3대 주제 실천을 위한 확고하고 구체적인 국제협력의 계기가 마련되어야 함.
- o 특히 동 정상회의는 빈곤의 타파를 최우선 과제 (priority target)로 설정하고, 아프리카나 최빈국 (LDC) 등을 포함하는 빈곤국의 사회개발을 위한 새로운 추가재원 (new-additional financial resources) 마련에 중점을 두어야 함.

2) EU 대표 (Simone Veil 프랑스 사회보건도시장관) 연설요지

- o 사회개발정상회의를 통해 개인이 처음으로 개발과정의 중심이 된 것을 환영. 특히 여성의 중요성, 동등한 권리보장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 환영
- o 세계안정과 평화를 위한 사회개발의 중요성 강조
- o 개도국에 대한 부채경감의 중요성에 동감, 1994.12월 Paris Club에 의한 개도국에 대한 정부간 부채 경감조치 언급
- o GNP 0.7% 원조 formula (ODA)의 중요성 언급
  - 효율적 원조자금 사용을 위한 공여국과 수혜국간의 전략적 접근 필요성 강조
- o 사회개발을 위한 전세계적인 효율적 자원배분의 중요성 언급
  - 군사비 지출 절감 등 주장
- o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ILO의 역할 강조

3) 우리나라 고위급대표 (서상목 보건복지부장관) 연설요지

- o 탈냉전시대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경제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오늘날 세계는 경제통합 및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증대되고 있음.
- o 한국은 두드러진 경제성장과 사회개발을 성취한 국가로서 여타 개도국과 우리 개발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며, 또한 한국 1960년대까지 가난한 농업국가에서 지난 30년간 경제적으로 커다란 진전과 함께, 사회개발에 있어서도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음.
- o 이러한 경제사회적 발전은 제1단계 (1960년대초-70년대말) 노동집약적 산업화를 통한 고용창출 및 제2단계 (1970년대말 이후-) 경제적 소외계층을 겨냥한 사회보장제도 및 공공부조 제도 등 사회적 형평정책 추진의 결과임.

o 사회개발 진전을 위한 몇가지 제안을 하자면, 노동집약적 제조업에 대한 외국투자 확보 1차 상품의 가격안정화 및 교역조건개선, ODA 수준 상향 조정, 기술이전 노력 등이 필수적이라고 봄. 이와 관련, 한국정부는 국제협력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추진하고 있는 세계화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의 사회개발경험 및 경제성장 전략을 개도국들과 공유해 오고 있음.

4) Hillary Clinton 미 대통령부인 특별연설

* 3.7 본회의에서 특별초청연사 자격으로 연설

o 국제협력을 통한 인류공동의 번영 달성의 일환으로 NPT의 무조건, 무기한 연장이 중요

o 인간중심의 사회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교육, 노동조건 개선, 인권보장, 자유의 신장과 특히 여성, 아동의 권익보장이 중요

o 미국은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3개 대륙의 빈곤층 소녀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정책을 발표할 예정

o 사회개발에 있어서 NGO 역할의 중요성 강조

5) 미국 고위급대표 (Madeleine Kunin 교육차관) 연설요지

o 사회개발정상회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NGO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여성에 대한 교육투자가 증대되고 여성의 동등한 사회개발과정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o 이번 회의를 통하여 고용증대, 여성지위향상, 빈곤감소에 대해 구체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함.

o 빈곤감소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정책수단은 여성에게 기초 보건서비스 및 기초교육기회를 확대하는 것임.

6) 북한 고위급대표 (김흥림 주덴마크대사) 연설요지

o 민족적.종교적.인종적 분쟁이 냉전종식후의 가장 어려운 국제문제가 되었으며, 사회개발을 방해하는 근본원인이 되고 있는 바, 모든 분쟁을 대화,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여야 함.

o 국제사회는 식민지배 또는 외국점령하 인민들의 자결권 실현에 장애요소를 제거해야 하며, 또한 세계 각지에서 긴장을 악화시키는 모든 군사활동을 종식시켜야 함.

o 개도국 사회개발의 장애요인은 역사적으로 지속되어온 국제관계의 불평등에서 기인하며, 따라서 국제사회는 개도국, 특히 아프리카 제국과 최빈국의 사회개발을 위해 재정적.기술적 원조를 제공할 책임이 있음.

o 선진국은 GNP의 0.7%를 공적개발원조로 제공한다는 공약을 가능한한 조속 이행하여야 함.

o "사회.환경조항" (social and environmental clauses)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보호주의는 개도국 상품의 수출길을 막음으로써 개도국 사회개발에 불리한 환경을 조성함.

o 선진국과 국제금융기구는 개도국의 외채문제에 대한 포괄적.현실적 해결방안 강구를 위해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함.

7) 중국 고위급대표 (Hao Jianxiu 국가계획위원회 부주임) 연설요지

o 중국은 개도국의 일원으로서 빈곤퇴치, 고용증진,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전개해 왔으며, 1994년에는 사회개발에 관한 국민회의 소집을 통해 향후 15년간에 걸친 사회개발계획을 입안하였고, "사회개발에 관한 국제심포지움"을 유엔사회개발정상회의 준비사무국과 공동 주최하기도 하였음.

ㅇ 중국정부와 국민들의 빈곤퇴치 노력의 결과 중국내 빈곤상황이 현저하게 개선되었으며 (1987-92년간 농촌빈곤층이 2억 5천만에서 8천만으로 감소), 중국 국민들의 삶의 질이 꾸준히 향상되어 왔음. (평균 수명이 1970년대 중반 65세에서 현재 70세로 상승)

ㅇ 중국의 현재 목표는 2000년까지 중국내 전 지역에서 절대빈곤을 제거하고 전국민이 골고루 잘 살게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여전히 빈곤에 신음하는 중국내 8천만 인구에 대해 2000년까지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하는 국가적 차원의 프로그램을 시행중에 있음. 또한 빈곤퇴치를 위한 중국정부의 몇가지 기본 인식을 밝히고자 함.

① 빈곤퇴치는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전제조건임.

② 빈곤퇴치 방법은 경제개발에 있음.

③ 빈곤퇴치는 시민을 조직하고 정부에 의한 지원을 필요로 함.

④ 빈곤퇴치는 국제협력 및 선진국으로부터의 보다 많은 기여를 필요로 함.

8) 일본 고위급대표 (Hisahi Owada 주유엔대사) 연설요지

ㅇ 사회개발 관련 대외원조 총액의 2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나라로서 대외원조의 중요성을 강조함.

ㅇ 이번 회의를 통해 20/20 제안에 대한 각국의 의지가 표명된 것을 환영함.

ㅇ 사회개발 실천계획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유엔기구의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함.

9) 덴마크 고위급대표 (Poul Nielson 개발협력부 장관) 연설요지

ㅇ 외채문제와 관련 약 2억 달러에 해당하는 아프리카.중남미의 주요 개발차관부채 (outstanding development loan)을 단계적으로 탕감 (debt forgiveness)할 계획임.

ㅇ 국제금융기구 외채 (multilateral debt)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고, 주요 IDA와 지역개발기금의 외채탕감 및 soft loan 대신 grant 제공을 제의함.

ㅇ 사회개발 실천계획의 이행강화를 위한 조치로 독립재정기금 설립 (raising independent finance 및 고위급 이행평가위원회 (independent commission of outstanding persons)의 설치를 제안함.

10) Sadako Ogata 유엔난민고등판무관 (UNHCR) 연설요지

ㅇ 현재 전세계적으로 23백만명의 난민이 있으며, 난민문제는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의 안정과도 직결되어 있음.

ㅇ 난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발적인 송환보장 및 난민발생 (refugee flow) 방지에 대한 각국 정상들의 의지가 표명되기를 기대함.

다. 세계여성의 날 (3.8) 기념 특별행사

ㅇ 3.8(수) 오전 본회의에 이어 "세계여성에 대한 공약"이라는 주제하에 「세계여성의 날」(International Women's Day) 기념 특별행사를 개최, 부트로스-갈리 유엔사무총장과 힐러리 클린턴 미대통령 부인 등의 특별연설을 청취하였음.

- 세계여성의 날은 1910.3.8. 덴마크가 최초로 지정, 기념하기 시작하여 금년이 85회째임.

1) 부트로스-갈리 유엔사무총장 연설요지

o 1990년 이래 유엔이 주최한 아동정상회의, 리우 환경회의, 세계인권회의, 카이로 인구회의 등 일련의 세계회의에서 여성의 역할증진 문제가 강조되었으며, 이번 사회개발정상회의에서도 여성개발 문제가 중심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o 1995.9월 북경 개최 제4차 세계여성회의 등을 계기로 남.녀간 완전 동등권이 금세기내에 실현되기를 기대함.

2) 힐러리 클린턴 미대통령 부인 연설요지

o 사회개발에 있어서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미국정부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개도국의 저소득 소녀 및 여성교육에 향후 10년간 1억불 예산 지원 계획임을 발표함.

o 국제사회의 여성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함.

2. Main Committee (3.6-10)

가. 회의진행

o Main Committee는 Somavia 의장 주재하에 3.6(월) 오후 제1차회의를 개최, 「선언」 및 「실천계획」중 미합의사항에 대한 토의를 개시하였음.

o Main Committee는 효율적인 토의진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4개 Working Group (W/G)으로 나누어 쟁점을 토의한 후, 그 결과를 보고받기로 하였음.

- W/G 1 (Butler 주유엔 호주대사 주재) : 「선언」 및 「실천계획」 제1장
- W/G 2 (Rizali 주유엔 말레이지아대사 주재) : 재원조달부분 총괄
- W/G 3 (Richelle 주유엔 화란대사 주재) : 「실천계획」 제 2, 3, 4장
- W/G 4 (Shah 주유엔 인도대사 주재) : 교육과 보건문제

o 상기한 4개 W/G은 참가 각국의 활발한 입장 개진으로 토의가 예상보다 지연되어 3.10(금) 야간에 최종 문안합의에 이름.

o 곧이어 개최된 Main Committee는 상기 「선언」(안) 및 「실천계획」(안)을 참가각국 합의하에 채택함.

- 동 안은 3.12(일) 정상회의 본회의에 상정되어 각국 정상들에 의해 만장일치로 정식 채택되었음.

나. 주요 합의사항

(3대 핵심의제별 주요 합의내용)

o 빈곤퇴치와 관련, 각국이 자체 정한 목표시점까지 절대빈곤을 근절시키고, 가능한한 조기에 전반적인 빈곤을 대부분 감소시키는 정책 및 전략을 1996년까지 마련 및 강화키로 합의

o 고용증대와 관련, 경제성장을 통한 고용기회 확대 및 생산성 증대방안 개발, 직업훈련 및 교육기회 확대, 특히 여성의 고용기회 증대 모색 등에 합의

o 사회통합 증진과 관련, 가족 및 교육제도, 대중매체 및 지역기관들을 통해 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 다원주의, 관용과 책임, 비폭력, 유대 등의 가치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여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달성키로 합의

(재원조달 관련)

1) 외채문제

o 외채의 경감 또는 탕감 문제에 대해서는 아프리카 및 최빈국 (least developed countries, LDC)의 양자간 부채를 가능한한 조기에 "대부분 경감" (substantially reduce) 하기로 하는 타협안에 합의하였음.

o 다자채무 (multilateral debt)에 대해서는 과다채무국으로서 저소득 국가 (low-income countries)에 대해 부채부담을 경감시키는 조치를 강구한다는 선에서 합의하였음.

o 외채 경감을 받는 상기 개도국은 경감액을 사회개발 부문에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개발하기로 합의하였음.

2) ODA 이행문제

o GNP의 0.7%를 ODA로 제공한다는 목표를 가능한한 조기 달성하기 위해 노력함.

o ODA중 아프리카 및 최빈국 (LDC)의 개발 지원을 위한 비율을 증액하고, 특히 최빈국에 대한 ODA 지원 비율을 가능한한 조기에 0.15%까지 증액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음.

3) 20:20 공약

o ODA 및 개도국 예산의 20%를 기본적 사회부문 (basic social programmes)에 할당한다는 문제, 즉 20:20 공약 (compact)에 대해서는 관심있는 당사자간에 동 공약의 이행을 권유하기로, 즉 관계국의 자발적 (voluntary) 이행 사항으로 합의하였음.

4) 사회개발기금 설치

o 선.후진국간 입장 대립으로 다음 기회에 다시 논의키로 하고 문안에서 제외하였음.

(기타 주요이슈에 대한 합의내용)

1) 노동자 권리 보호문제

o 5대 "핵심노동기준" (core labour standards)에 관한 ILO 협약의 준수를 정상회의 "선언"에 명시하려는 선진국과 이를 허용하는 경우 노동과 무역의 연계 등 "사회조항" (social clause)으로의 발전을 우려하여 이에 반대하는 77그룹의 입장대립은 다음과 같이 절충안으로 타협하였음.

o 선진국의 입장을 반영,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결사의 자유,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차별금지원칙의 5대 노동기준은 이를 명시함.

o 한편, 77그룹의 입장을 반영, 이들 5대 노동기준과 관련한 ILO 협약의 준수를 요구하지 않고 대신, 이들 협약에 대한 존중 (respect)을 증진하기로 함.

2) 교육과 보건문제

o 사회개발에 있어서 "교육과 보건"의 중요성을 감안, 다음 골격에 따라 정상회의 "선언" 제10 공약으로 이를 추가하기로 하고 최종문안 작업을 완료함.

o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양질의 교육 (quality education)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o 모든 사람들이 기초 의료서비스 향유 및 최상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인권문제

o 선진국 주장을 반영, 인권관련 문구, 예컨대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최대한 존중" 등을 삽입하고, 개도국은 이에 대응하여 인권의 일부로서 개발권 (right to development) 표현 삽입을 주장, 이를 포함시켰음. 또한, 식민상태와 외국 점령치하에 있는 민족의 자결권 (right to self-determination) 존중도 문안에 반영하였음.

4) 환경문제

o 선진국 주장에 따라 환경보호관련 표현을 삽입하고, 환경문제가 선진국의 과소비 (over-consumption)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는 개도국 주장도 함께 반영하였음.

5) 민주적 통치 (good governance) 문제

o 선진국이 민주적 통치가 사회개발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후진국은 동 개념의 모호성, 민주적 통치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의 문제 등을 들어 동 표현 삽입에 반대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민주적 통치 표현을 "통치의 투명성 및 책임성" (transparent and accountable governance) 표현으로 대체키로 합의하였음.

6) 국제사회 지원대상국가군 분류문제

o 아프리카 및 최저빈국외에 전환기 경제국가군(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CIS 국가)에 대한 특별 고려 및 조치 필요성에 합의하였음.
  - 중미지역국가, 군소도서개도국, 내륙국들은 각각 그룹을 형성하여 단합된 행동으로 국제적 지원을 요청하는 문안 삽입을 주장, 관련 조항에 반영키로 하였음.

7) 구조조정계획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me) 문제

o 구조조정계획 시행시 동 계획이 빈곤퇴치, 생산적 고용증대, 사회통합 증진 등 사회개발의 목표와 효과적인 개발전략을 포함하도록 선후진국이 공동 노력키로 합의하였음.

3. 정상회의 (3.11-12)

가. 정상환영식 (Welcoming Ceremony)

o 3.11(토) 09:45 정상환영식을 개최,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와 부트로스 갈리 유엔사무총장이 차례로 환영사를 함.

1) 부트로스 갈리 유엔사무총장 연설요지

o 냉전종식과 함께 국제협력의 가능성은 어느때보다 높음.
o 범세계적인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해서는 국제적 연대의 정신이 요구되며 "선언 및 실천계획"은 이러한 정신을 반영하고 있음.
o 앞으로 사회개발정상회담이 구체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

2)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 연설요지

o GNP 0.7%의 공적원조 제공 목표를 조속히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o 최빈국을 위한 부채탕감이 매우 중요하며, 조만간 이를 위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여 최빈국의 사회개발에 도움을 주어야 함.

나. 각국 정상 연설

o 3.11(토) 정상환영식 직후부터 3.11-12 양일간에 걸쳐 우리나라를 포함,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인도 등 118개국의 국가원수·정부수반이 연설하였음.

o 3.12(일)에는 심야까지 각국정상 및 대표의 연설을 계속한 후, 정상회의 보고서, 「코펜하겐 선언 및 실천계획」, 주최국인 덴마크에 대한 감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3.13(월) 02:42에 역사적인 대단원의 막을 내렸음.

1) 김영삼 대통령 연설요지

* 3.11(토) 16번째로 연설하였으며, 개도국들에 대한 구체적 지원계획 언급으로 참석 각국 대표들로부터 환영과 지지를 받았음.

o 한국은 50년전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출발하였지만, 경제성장과 사회 개발에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고 수준높은 민주정치도 실현하였는 바, 한국의 개발경험은 많은 개도국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선후진국간 바람직한 협력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봄.

o 한국의 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은 의무교육제도 등을 통한 수준높은 교육, 농지개혁 등에 의한 균형된 소득분배의 기초 마련, 한국민의 자구 노력, 대외지향적 산업화정책 추진,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세계각국의 외자도입을 포함한 재정적.기술적 원조, 자유무역체제 등 이었음.

o 오늘날 많은 선진국들은 심각한 실업문제를 안고 있지만, 개도국에게 시장을 더욱 개방하고 투자를 늘림으로써, 궁극적으로 개도국이 선진국의 유익한 파트너가 되도록 해야 함. 또한, 개도국이 당면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개도국의 사회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직접적인 원조와 협조가 병행되어야 함.

o 한국정부는 「세계화」 정책을 통해 대내적으로 개혁과, 대외적으로 국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그동안 성장의 그늘에 가려 소홀했던 사회개발분야에 보다 각별한 배려를 해나갈 것임.

o 개도국의 생산과 고용을 창출하고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기 위해 우리의 경제능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공적개발원조 (ODA) 규모를 대폭 확대시키고, 1980년대부터 전개해온 개도국 인력양성지원 및 전문가 파견 노력을 확대하여, 향후 2010년까지 3만명 이상의 개도국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할 계획임.

2) 일본 무라야마 수상 연설요지

o 한신대지진으로 인한 재해시 각국 정부가 베풀어준 동정과 지원에 감사 드리며, 이에 보답하기 위해 천연재해 감소를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코자 함. 작년(1994년) 일본에서 개최된 천연재해 감소에 관한 세계회의는 지역 차원에서의 재해감소조치 강화를 촉구하는 「요꼬하마 전략」을 채택한 바 있음.

o 사회개발 촉진을 위한 국가정책에 있어 다음 3 분야에 최우선 순위가 두어져야 함.

① 사회개발에 대한 인간중심의 어프로우치. 이와 관련, 범세계적인 군축과 국가예산의 상당액을 사회개발 프로그램에 할당.

② 교육.훈련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

③ NGO 등 시민사회와, 특히 여성의 사회개발에의 적극 참여

o 일본은 개도국의 자조노력 지원을 위해 다음 3가지 분야에 집중할 것임.

① 인간중심의 사회개발을 위하여 양자 공적원조의 20% 이상을 계속해서 이분야에 지원

② 교육과 직업훈련 지원

③ 사회개발에 있어 여성의 역할 강조

3) 오스트리아 브라니츠키 총리 연설요지

o 개도국에 공여한 부채 10억 쉴링을 탕감함.

o 1997년 비엔나에서 사회개발정상회의 실천 경과 검토를 위한 유럽국가 회의를 주최할 예정임.

4) 중국 이붕 총리 연설요지

o 경제성장 없이는 빈곤퇴치, 고용증대, 생활수준의 향상을 기하기가 어려움.
o 각국은 스스로에 맞는 사회체제와 경제발전 모형을 선택할 권리가 있음.
o 전세계적 사회개발을 위해서는 선진국이 부채경감등 보다 많은 책임을 맡아야 함.

5)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 연설요지

o 이번 사회개발정상회의가 아프리카 및 최빈국의 경제 상황을 특별히 고려한 점을 환영함.
o 노동조건에 대한 기준설정 등을 통해 노동자 권리 향상에 기여한 점을 환영함.
o 사회개발 재원 조달을 위해 Tobin Tax의 도입을 지지함.

6) 북한 김병식 부주석 연설요지

o 북한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일"의 지도하에 사람위주.자립위주의 화목한 사회주의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회문제는 전무함.
o 냉전이후 세계는 사회악과 모순 노출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바, 각국은 인민의 의사를 반영, 각자의 실정에 맞는 체제와 개발 노선을 선택할 권리가 있음.
o 평화.안정이 사회발전의 전제조건이며, 이를위해 내정불간섭, 군비삭감, 무력행사 금지가 지켜져야 함.
o 사회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특히 남남협력, 선진국과 국제금융기구의 부채문제 해결을 통한 개도국 지원등이 필요함.

7) 미국 알 고어 부통령 연설요지

o 탈 냉전후의 새로운 도전은 미국의 대외원조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한 창의적이며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를위해 오늘 클린턴 대통령의 새로운 대외원조정책인 "새로운 동반자 이니셔티브" (New Partnerships Initiative)를 선언함.
o 이 Initiative는 "정부 대 정부 원조"라는 과거의 방법과는 정반대되는 것으로서, 개도국이 지방기초조직 단위에서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의사결정을 강화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이 있으며, "사람우선" (people first)이라는 지도이념하에 다음의 세가지를 기본목표로 추구할 것임.
(1) 소기업이 경제 성장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지원
(2) 개발 계획에 있어서 NGO의 역할 강화
(3) 개도국이 지방조직단위(at the local lovel)에서 민주주의를 촉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지원
o 미국제개발처(USAID)는 이 "Initiative"에 따라 개발원조의 40%를 NGO (미국 또는 어디에 본거지를 두고 있든 불문)를 통해 개도국에 지원 예정이며, 특히, 미국 소기업과 개도국 소기업간의 기술연수계획 (training and internship programs)을 확대해 나갈 예정임.

8) 말레이지아 마하티르 총리 연설요지

o 선진국이 서방의 가치를 개도국에게 강요하고, 천안문 사태를 국제 문제로 간주하면서도 체첸사태는 국내문제로 취급하는 등 이중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o 개도국의 사회.경제발전 추진에 있어서 선진국에 의한 방해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음. 개도국은 개도국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분야, 특히 노동과 천연자원 분야를 잠식하려는 선진국의 기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o 선진국은 인권.사회조항.환경등을 이유로 개도국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바, 선진국이 자기들의 발전도상 단계에 있을때 이러한 기준을 적용했는지 묻고 싶음.

o 말레이지아는 이번 정상회의 합의사항을 전폭적으로 지지함. 코펜하겐 선언 및 행동계획은 실천적 사회개발 계획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코펜하겐은 "리오" (Rio)의 재판이 될 수 없음.

9)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대통령 연설요지

o 사회개발정상회의의 주요 이슈는 사회정의와 자결(self-determination)을 추구해온 비동맹 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동 회의가 사회진보, 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함.

o 개도국의 사회개발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외채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바, 현재까지 드러난 성과는 미약함.

o 국제금융기구는 개도국에 대한 외채경감 및 양허적인 재정지원 (concessional financial assistance)의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적절한 수단들을 고려해야 함.

10) 호주 키팅 총리 연설요지

o 호주는 균등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및 고용창출에 중점을 두는 사회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o 아.태지역은 시장접근 문제에 큰 이해를 갖고 있으며, APEC은 선진국과 선진국과 개도국간 실천적 협력을 구현하고 있음.

11) EC 작크 상떼 집행위원장 연설요지

o 유럽도 스스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 가치를 다른 나라에 강요하지 않음. 이번 회의가 남.북간의 대립이 아니라 상호간의 의존 관계를 인식하고 문제해결에 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함.

o 유럽은 무역 및 금융시장의 개방, 공적원조의 확대, 20/20 vision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IMF, IBRD, ILO, WTO가 이를 위해 노력해 줄것을 기대함.

12) 스리랑카 쿠마라퉁가 대통령 연설요지

o 인적자원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개발원조의 뒷받침이 없어 저성장, 고실업, 내전을 경험한 스리랑카의 사례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20/20 공약을 구현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임.

o 스리랑카 정부는 국민의 참여, 정부의 책임성(good governance and accountability)을 중시하는 사회개발 정책을 수립, 추진중인 바,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함.

13) 남아공 만델라 대통령 연설요지

o 사회개발정상회의는 모두의 번영을 위한 협력 모색을 위한 것임.

o 보호무역주의 반대, 인권존중, 민주주의 가치등을 지지하고 선진국이 개도국을 경제적으로 종속적인 대상으로 인식해서는 안됨.

o 아프리카 빈곤화 방지 방안의 조속한 강구를 촉구함.

Ⅳ. 코펜하겐 선언 및 실천계획

Ⅳ. 코펜하겐 선언 및 실천계획

1. 채택경위

ㅇ 유엔 사회개발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의장 : Somavia 주유엔 칠레대사)는 94.1월 제1차 준비회의를 개최, 각국대표단의 입장을 반영, 「선언」과 「실천계획」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94.8월 제2차 준비회의 및 94.10월 비공식 협의회, 95.1월 제3차 준비회의를 거치면서 동 초안의 문안 토의를 진행시켜 왔음.

- 제1차 준비회의 : 94.1.31-2.11, 뉴욕
- 제2차 준비회의 : 94.8.22-9.2, 뉴욕
- 비공식 협의회 : 94.10.24-28, 뉴욕
- 제3차 준비회의 : 95.1.16-27, 뉴욕

ㅇ 각국은 95.1월 제3차 준비회의에서 「선언」 및 「실천계획」중 대부분의 문안에 합의하였으나, 주요 쟁점사항이었던 외채탕감 및 경감문제, 공적 개발원조 (ODA) 문제, 인권문제, 20/20 계약 문제, 환경문제, 국제사회의 지원대상 국가군 분류문제, 구조조정계획문제 등에 관해서는 선진국 그룹과 77그룹(개도국) 간에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인해 합의를 보지 못하고 금번 코펜하겐 정상회의에서 마지막 절충을 벌이기로 하였는 바, 금번 정상회의시 모든 쟁점사항들을 타결, 「코펜하겐 선언 및 실천계획」을 채택하였음.

2. 주요내용

ㅇ 「선언」과 「실천계획」은 사회분야의 모든 주제들을 망라하는 역사적인 문서로서, 「선언」에서는 우리 인류가 빈곤.실업.사회분열과 같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긴급히 대처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사회개발의 원칙과 목표, 이에따른 10개 공약사항을 채택하였고, 「실천계획」에서는 선언에 열거된 원칙을 이행하고 공약을 완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조치사항들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였음.

가. 「선언」 요지

(서 론)

o 각국 국가원수 및 정부수반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유엔의 초청에 따라 사회개발 및 인간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고려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음. 세계 인류는 빈곤, 실업, 사회적 분열과 같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에 긴급히 대처할 필요성을 제기해 왔고, 상기 문제들의 근본 원인과 고통스런 결과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하는 것이 우리 정상들의 임무임.

o 민주주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통치와 행정이 사회개발 및 인간중심의 지속개발 실현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토대임을 인식

o 사회개발과 사회정의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평화와 안전의 성취와 유지를 위한 긴요한 전제 조건임. 반대로 평화와 안전이 없으면 사회개발과 사회정의는 실현될 수 없음. 이러한 필수적인 상호 의존 관계는 유엔헌장에 잘 반영되어 있으며, 훨씬더 긴밀해 지고 있음.

o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은 상호의존 관계에 있으며, 병행 추진이 필요함. 균형된 사회개발은 지속개발과 경제적 번영에 필요한 기초가 되며, 역으로 지속 개발과 광범위한 경제성장은 사회개발과 사회정의의 전제 조건임.

o 사회개발은 전세계 시민들의 요구와 열망에 있어, 또한 정부와 시민 사회 각 부문의 책임에 있어 중심적인 위치에 있음. 가장 생산적인 정책과 투자는 경제·사회 양측면에 있어 시민들이 능력, 자원 및 기회를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과 투자임.

o 유엔창립 50주년에 즈음하여 사회개발과 사회정의를 촉진하기 위해 냉전종식이 가져다준 전기를 활용한다는 다짐과 함께 이 엄숙한 공약을 함. 또한 유엔 헌장의 원칙 및 관련 국제회의의 합의 사항을 재확인하며 이를 지도 원칙으로 삼고자 함 ('90 아동정상회담, '92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 '93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94 군소도서 개도국의 지속적 개발회의, '94 카이로 국제인구개발회의 등)

o 금번 정상회의에서 동반자 정신에 입각하여 시민들의 욕구와 열망을 정상들 결정의 중심에 두고 정부간, 시민간에 국제협력의 새시대를 열고자 함. 정상들은 상기 과제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주요한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루어져야 하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이 선언문과 실천계획의 이행을 다짐하면서 모든 시민들의 동참을 요구함.

(A. 현세계의 사회적 상황 및 정상회의 개최사유)

o 오늘날 세계는 유례없는 발전과 형언할 수 없는 비참함이 병존하고 있는 위험하고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음.

- (주요발전) : 세계적으로 부의 축적이 과거 50년간 7배 증대되었고, 국가간 교역이 훨씬더 극적으로 성장하였음. 인간의 수명, 문자해독 능력, 다원주의.민주적제도, 시민적 자유가 확대되었으며, 또한 개도국의 평균유아사망률도 감소되었음.
- (주요 문제점) : 빈부격차 및 남북격차의 확대, 기아, 체제전환국가들의 심각한 사회문제, 높은 실업상태등이 현 세계의 문제점의 일부임.

o 아프리카와 최저빈국 상황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전염병, 조직범죄, 마약유통, 무장충돌, 테러등의 척결 노력이 필요하고, 빈곤, 생산적 노동의 결여, 사회해체등의 문제는 인간존엄성에 대한 침해임.

o 국제적인 협력과 동반자 관계의 구축을 통해 장래 인류의 새로운 비전 제시를 위한 인간중심(people-centered)의 사회개발 토대 마련이 필요함.

(B. 원칙과 목표)

o 인간존엄성, 인권, 평등, 존경, 평화, 민주주의, 상호책임과 협력, 다양한 종교적.윤리적 가치에 대한 존중등에 기초한 사회개발을 위한 정치적, 경제적, 윤리적, 정신적 비전을 공약

o 구체적 조치 내용 :

- 인간중심의 개발 및 경제활동, 경제.사회 정책의 병행.통합추진, 지속 가능한 사회개발의 기초로서 건전한 경제정책 시행 필요, 부의 보다 공정한 재분배 및 자원에 대한 접근기회증진, 인류의 후세에 대한 책임이행.
- 인권, 민주주의, 평등, 인간존엄성, 사회정의, 일체감 증진 및 관용, 비폭력, 다원주의, 차별철폐, 사회기본단위로서의 가정의 중요성,

o 사회개발 목표들의 성취는 개별 국가가 일차적 책임을 지나, 개별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달성될 수 없으며, 국제공동체, 유엔, 시민사회의 각부문간 협력을 통해서 확보될 수 있음.

- 모든 이들이 각자 속한 분야에서 구체적 실천을 통해 인류가 처한 현상황(human condition)을 향상 시키도록 노력해야 함.

(C. 공약사항 (Commitments))

공약 1 : 시민들이 사회개발을 성취할 수 있게하는 경제적.정치적.사회적.문화적.법률적 환경 창출 다짐

공약 2 : 단호한 국가적 조치 및 국제협력을 통해서 인류의 도덕적.정치적 경제적 당위 과제로서의 빈곤퇴치 다짐

공약 3 : 자유로이 선택된 생산적 고용 및 직업을 통해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생계를 달성하고, 완전 고용의 목표를 유지할 것을 다짐

공약 4 : 안정적이며,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조성함으로써 사회통합 및 모든시민 참여를 증진시키기로 다짐.

공약 5 : 인간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사회발전 및 개발에 여성의 참여 증진과 완전한 남녀평등 달성을 다짐.

공약 6 :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양질의 교육, 기초 의료서비스 향유 및 최상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다짐.

공약 7 : 아프리카와 최저빈국의 경제적.사회적.인적자원의 개발을 가속화 할 것을 다짐.

공약 8 : 구조조정계획이 빈곤퇴치, 생산적 고용 창출, 사회통합증진 이라는 사회개발의 목표를 포함하도록 다짐

공약 9 : 국가별 조치와 국제협력을 통해서 정상회의의 목표를 달성하기 하기 위해 사회개발 부문에 할당된 재원을 확대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을 다짐

공약 10 : 유엔과 기타 국제기구를 통해서 동반자 정신으로 사회개발을 위한 하부지역적.지역적.국제적 협력의 토대(framework)를 강화 할것을 다짐

나. 「실천계획」 요지

(서 론)

o 사회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선언」에 열거된 원칙들을 이행하고, 공약들을 완수하기 위한 정책 및 조치들을 개괄적으로 기술.

o 사회개발에 유리한 환경조성, 빈곤퇴치, 생산적 고용 증대, 그리고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함을 권고함. 이들 조치들은 상호 연계되어 있음.

ㅇ 실천계획에 언급된 많은 이슈들은 여성지위, 아동복지, 인구, 보건, 교육, 지속가능한 개발등의 주제들과 관련된 이전의 세계적 규모의 회의에서 대단히 자세하게 다루어 졌음. 실천계획은 이들 회의의 공약과 권고를 고려하여 마련 되었으며, 많은 나라들의 사회개발 경험에 근거하여 작성 되었음. 실천계획의 중요성은 사회개발을 위한 일관된 국가적, 국제적 전략속에 빈곤퇴치, 고용창출, 사회통합을 위한 많은 여러 조치들을 통합시키고자 하는 통합적 접근방식에 있음.

(제1장. 사회개발을 위한 여건 조성)

A. 국가별 및 국제적 경제 여건
- ㅇ 사회개발의 기초로서의 무역, 고용 및 소득의 균형성장 촉진
- ㅇ 범세계적인 성장이익의 보다 균형된 국가별 배분 보장
- ㅇ 개도국 지원 필요성 확인, 특히 아프리카 및 최빈국(LDC)들에 대한 우선적 지원 시행
- ㅇ 경제성장 및 시장경제체제가 사회개발을 지향토록 유도
- ㅇ 금융구조 및 제반 공공정책이 사회적불평등을 야기하지 않도록 유의

B. 국가별 및 국제적 정치.법률 여건
- ㅇ 정치체제가 사회개발 관련 제반 목표를 지원토록 보장
- ㅇ 개인의 자유 보호 및 신장
- ㅇ 모든 사람에 대한 지식, 교육 및 정보에의 접근 보장을 통해 공개적인 정치. 경제체제 촉진
- ㅇ 각국별 정치적.법률적 여건조성 노력에 대한 국제적 지원

(제2장. 빈곤퇴치)

A. 통합전략 수립
- ㅇ 지역적.국가적 차원에서의 경제.사회정책수립.시행시 빈곤퇴치를 위한 목표 포함.
- ㅇ 빈곤의 원인, 파급효과 및 빈곤퇴치 정책 등의 평가를 위한 조치 포함
- ㅇ 각국별 빈곤퇴치 노력에 대한 국제적 지원 확보방안 포함

B. 생산적 재원 및 하부구조 (INFRASTRUCTURE)에 대한 접근 개선
- ㅇ 저소득계층의 생산성 향상 및 소득원 다양화를 위한 기여 부여
- ㅇ 소규모 농가, 영세농, 임업 및 어업 종사자들에 대한 기회 부여
- ㅇ 소규모 생산업자들에 대한 융자제도의 실질적 개선
- ㅇ 도시 빈곤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C.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간적 욕구 충족
- ㅇ 빈곤.소외계층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들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위한 정부 및 사회 각 부문간 협력
- ㅇ 기본적 욕구 충족과 관련된 정부의 공약사업 이행
- ㅇ 빈곤.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 개선

D. 사회적 보호 체계 강화
- ㅇ 모든 소외.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강화
- ㅇ 아동보호 필요성 확인
- ㅇ 재해로 인한 일시적 또는 장기적 빈곤으로부터의 보호책 마련

(제3장. 생산적 고용창출 및 실업감소)

A. 정책수립시 고용창출적 성장의 중심적 위치

o 개발전략과 경제.사회정책 추진에 있어 생산적 고용증대 정책의 우선적 추진

o 거시 안정정책 조치에 따른 고용분야에 대한 부정적 영향 극소화

o 추가고용창출이 예상되는 민간부문 기업의 창설 및 성장 촉진

B. 교육.직업훈련 및 노동정책

o 생산적 고용분야 종사자 지원

o 근로자들의 경제환경 변화에의 적응을 지원

C. 근로 및 고용의 질적향상

o 근로 및 고용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

o 근로환경 개선, 착취근절, 생산적 제고 및 생활수준 개선을 위한 제반 방안 마련

D.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기회 증대

o 장기실업문제 개선책 마련

o 청소년, 여성 및 장애자 취업 지원

o 이주노동자 및 가족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모색

E. 근로와 고용의 개념 확대

o 근로 및 고용의 새로운 개념 정립

o 파트타임 직종, 자원봉사활동 등 지원책 마련

(제4장. 사회통합)

* 사회통합의 기본목표는 사회의 다양한 각계층 및 그룹들이 창의와 협력의 조화속에서 공존이 가능토록 하는데 있음.

A. 책임감 있는 정부 및 사회에의 전면적 참여

B. 차별철폐, 관용 및 다양성 존중의 실현을 위한 제반조치 이행

C. 기회균등 및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정부의 역할 강조

D. 소외계층에 대한 정부의 특별지원

E. 이주민, 이주노동자, 난민에 대한 동등한 대우 및 사회내 통합

F. 폭력, 범죄 및 마약문제의 해결 방안 모색

G. 사회통합과 가족의 책임

(제5장. 이행 및 후속조치)

A. 국가전략수립, 평가 및 재검토

o 실천계획 이행 및 사회개발정책 지원을 위한 국가차원의 통합적 전략 수립 필요성

B. 시민사회의 참여

o 교육, 보건, 빈곤감소, 사회통합 및 인도주의적 구호사업에 참여하는 지역단체와 NGO들의 활동지원을 통한 실천계획의 효과적 이행이 긴요

o 시민사회의 지원을 제고시키는 방안 마련

C. 재원동원

o 국가적 차원의 실천계획 이행을 위해 공공.민간부문 모두에서 기존 재원의 전용 및 새로운 재원 확보가 필요

- 사회개발 관련 공공재원 증액
- 국제사회의 대개도국 재정지원 확대
- 구조조정계획 시행시 사회개발 목표의 동시 달성 추구
- 실천계획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국제금융기관의 지원 강화

D. 유엔 및 국제기구의 역할

o 유엔경제사회 이사회 강화, 지속개발위원회(CSD)의 권한강화.재조정, 지역별.하위지역별 실천계획 이행 방안 마련, 유엔기관들의 역할 재검토, 사회분야에서의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고위급 회의 개최등을 위해 유엔총회가 특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

o 실천계획 이행과 관련 유엔차원에서 대개도국 지원 강화

o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사회개발 관련 유엔 보고서 제출체제를 검토, 국가적.국제적 조치 사항에 대해 명확한 정책적 권고를 할 것

V. 우리대표단 활동

V. 우리대표단 활동

1. 세계적 차원에서의 정상외교 전개

가. 정상회의 연설

- 김영삼 대통령은 정상회의 첫날인 3.11(토) 오전의 본회의 연설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개발과 민주화 달성 경험을 개도국들의 경제사회발전 모델로 제시하고, 국제협력강화 방침을 천명하였음.

- 김대통령은 동 연설에서 우리의 경제능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대폭 확대시키고, 1980년대부터 전개해온 개도국 인력양성지원 및 전문가 파견 노력을 확대하여, 향후 2010년까지 3만명 이상의 개도국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할 계획임을 천명함으로써, 참석 각국대표들로부터 환영과 지지를 받았음.

나. 개별정상회담 및 지도자 만찬회동

- 김대통령은 정상회의 참석외에 무라야마 일본 총리, 이붕 중국 총리, 쿠마라퉁가 스리랑카 대통령과 개별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13개국 정상들과 (방글라데시, 네팔, 몽골, 니카라구아, 페루, 라트비아, 보츠와나, 중앙아, 이디오피아, 가봉, 케냐, 말리, 탄자니아) 만찬 회동을 가졌음.

- 김 대통령은 상기 개별회담 및 만찬회동을 통해 각국 정상들과 국제정세 및 양자관계 강화 방안 등 공동관심사항에 관해서 의견을 교환하였고,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 확대 등을 통한 국제평화와 안보면에서 우리의 협력증진과, 경제사회개발 분야에서 우리의 개발경험 공유 및 우리능력 범위내에서 대개도국 협력 증대 의지를 표명한 후, 우리의 안보리 이사국 진출에 대한 각국 정상의 지지를 요청하였음.

o 우리 대통령이 이같은 규모의 합동 정상모임을 주도, 세계적 차원의 정상외교를 전개하는 것은 우리역사상 최초의 일로서 대통령 자신이 문민정부의 세계화 시책을 직접 앞장서서 실천해 나가는 것임.

2. 외무장관 활동

o 공로명 외무장관은 사회개발정상회의에 참석한 덴마크, 태국, 인도네시아, 이란, 부르키나 파소, 알젠틴, 멕시코, 수리남 등 8개국 외무장관과 개별 회담을 가지고, 양국 공동관심사 및 국제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최근 북한 내부정세와 KEDO 설립 등을 중심으로 북한 핵문제에 관한 현황 및 우리입장을 설명하였으며,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우리능력에 걸맞는 국제협력 증진계획을 설명하고, 우리의 안보리 이사국 진출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요청하였음.

o 외무장관은 또한 방글라데시, 페루, 니카라구아, 탄자니아, 케냐, 가봉, 중앙아, 보츠와나등 8개국 외무장관 만찬회동을 주최하여 한반도 및 국제 정세에 관한 의견교환 및 우리의 국제협력 증대정책 설명과 함께 우리의 안보리 이사국 진출에 대한 적극 지지를 당부하였음.

3. 보건복지부장관 활동

o 서상목 보건복지부장관은 3.6(월) 고위급 대표회의 연설을 통해 우리의 사회개발경험을 소개하고, 개도국의 사회개발을 위해 노동집약적 제조업에 대한 외국투자 확보, 1차상품가격 안정화 및 교역조건 개선, ODA 수준 상향 조정, 선진국의 기술이전 등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하였음.

o 보건복지부장관은 프랑스 노동.사회.도시장관과 영국 사회보장장관을 면담, 조속한 시일내에 사회보장세 면제 협정 체결 추진을 위한 실무회담을 제의 하였고, 특히 영국측과는 빠른 시일내에 실무급 접촉을 통하여 협정체결을 진행시키기로 합의하였음.

- 영국과의 협정체결을 바탕으로 미국, 독일 등과도 사회보장세 면제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할 예정임.

4. 사회개발정상회의 부의장국 피선

가. 피선결과

o 3.9(목) 오전 본회의 (plenary)는 우리나라, 필리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및 카탈의 6개국을 정상회의 아주지역 부의장으로 선출함.

나. 피선경위

o 3.6(월) 개회식에 이어 거행된 의장단 선거에서 아주그룹의 6석을 두고 다음 9개국이 경합함에 따라 아주그룹 부의장만 선출하지 못하였음.
  - 우리나라, 중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키스탄, 스리랑카, 네팔

o 아주그룹은 3.5(일) 비공식 의견교환, 3.6(월)-7(화) 4차회의 끝에 우리나라, 중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카탈의 6개국을 후보로 확정
  - 스리랑카는 아주그룹 의장국으서 후보사퇴
  - 부의장에서 탈락하는 "필리핀"과 "파키스탄"을 북경 세계여성회의 (95.9) 부의장국으로 추천키로 합의

o 필리핀이 부의장 피선에 중요성을 두고 있음을 설명하고, 아주그룹의 양해하에 사회개발정상회의 부의장과 북경여성회의 부의장 후보를 일본과 교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3.8(수) 일본대신 필리핀이 부의장국으로 확정됨.

5. 「선언」 및 「실천계획」 토의 참여

(참여상황 전반)

ㅇ 우리대표단은 「선언」 및 「실천계획」의 문안 토의에 적극 참여, 4개 W/G의 세부 심의과정에서 적극적인 기여를 하였음.

("가족조항" 제안)

가. 토의결과

ㅇ 「실천계획」중 사회통합부분에서 가족의 역할 및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족조항」을 제안하여 각국 대표단간의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실천계획」 제4장 제81항으로 최종 합의되었음.

나. 진행경과

ㅇ "가족조항"은 우리 대표단이 95.1월 제3차 준비회의에서 제안하였으나, EU측의 동 문안에 대한 이견으로 조항 전체가 미합의 상태로 남아 있었음.

ㅇ "가족조항"에 관한 토의에서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를 존중하는 77그룹과 사회변천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존재 (동성결혼 등)를 인정하고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중점을 두는 선진국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미국이 자국의 입장을 반영한 수정안을 제안하는 등 쟁점화됨에 따라 가족조항에 관한 비공식 실무협상위를 구성.토의하기로 하고 박수길 유엔대사를 의장으로 임명함.

ㅇ 비공식 실무협상위에서는 EU, 77그룹, 미국,호주, 교황청 등 주요 관심국간에 첨예한 이견 대립이 있었으나, 장시간 토의를 거쳐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존재를 인정하되 사회통합을 위한 가족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타협안에 합의하고 이를 채택하였음.

ㅇ 타협안 채택후 미국, 중국, 호주, 77그룹 대표 등 비공식 협상 참가국들이 발언권을 신청, 우리대표단의 협상력과 노고에 대한 평가와 사의를 표명함.

다. 관련조항 내용 (「실천계획」 제4장 제81항)

ㅇ 제81항 : 가족은 사회의 기본단위로서 강화되어야 하며, 포괄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함. 서로다른 문화적.정치적.사회적 체제내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함. 결혼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동의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부부는 동등한 동반자가 되어야 함. 가족이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족의 봉사, 교육, 양육 기능을 증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a) 가족 및 그 구성원 특히 소외되고 취약한 구성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경제정책이 권장되어야 하며, 특히 아동의 양육에 각별한 관심이 주어져야 함.

b) 가족의 구성원들이 사회적인 책임을 인식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함.

c) 가족 및 사회내에서 상호존중, 관용, 협동을 증진시켜야 함.

d) 가족내에서 남녀간의 동등한 동반자적 관계를 증진시켜야 함.

라. 평 가

ㅇ 우리나라는 사회통합에 있어서 가족의 중심적 역할에 대한 내용을 세계회의 문서에 포함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에 따라 향후 국제회의에서 가족문제가 거론될 경우에는 동 조항이 협상의 준거가 될 것으로 예상됨.

ㅇ EU 등 서구국가들과 77그룹, 미국, 호주 등의 첨예한 의견의 대립이 노정됨으로써 금번회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동 조항의 원만한 타결을 이끌어 냄에 따라 우리 대표단의 협상력이 참가국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음.

6. 기타 활동

가. 국가보고서 제출

o 「한국의 사회개발」(Social Development in Korea) 제하 사회개발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유엔사무국에 제출 및 정상회의 참가국에 배포
- 유엔은 국가보고서를 통해 각국의 사회개발 경험 (성공이나 실패 사례) 과 향후의 정책방향 및 대안에 관해서 정보수집 희망

나. 사회개발정상회의 신탁기금 출연

o 우리나라는 최빈국대표의 사회개발정상회의 참가비용 지원 및 정상회의 행사준비 지원을 위해 유엔측이 설치한 신탁기금에 $30,000 출연

다. 주요행사참석

o 김영삼 대통령은 3.11(토) 각국 정상내외를 위한 마그레테 2세 덴마크 여왕 주최 만찬에 참석하였음.

o 공로명 외무장관은 3.11(토) 각국 정상내외를 위한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 주최 오찬에 김대통령을 대신하여 참석하였음.

o 박재윤 통상산업장관 및 정근모 과학기술장관은 3.11(토) 각료급 대표단을 위한 닐슨 덴마크 개발협력장관 주최 만찬에 참석하였음.

Ⅵ. 평가 및 후속조치

VI. 평가 및 후속조치

1. 종합 관찰 및 평가

o 이번 사회개발정상회의는 총 193개국이 참가하였으며, 114개국의 국가원수. 정부수반이, 5개국으로부터 부통령이 참가함으로써 회의 참가국수 및 참석 국가 정상수라는 면에서 인류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국제회의가 되었음.

- 이번 정상회의는 고위급대표회의 (3.6-10)와 정상회의 (3.11-12)로 나누어 개최되었는 바, 고위급대표회의에서는 160개국 대표 및 34개 국제기구와 41개 NGO 대표가 연설하였으며, 정상회의에서는 114개국의 국가원수.정부수반과 5개국의 부통령 및 20개국의 부총리, 외무장관 등이 연설하였음.

o 이번 회의는 인류역사상 최초로 세계의 대부분 주요국가 정상이 함께 하여 "인간" 중심의 세계를 건설하기로 공약하였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국가" 중심의 사회.역사가 "인간" 중심의 사회.역사로의 전환점을 만드는 역사적 계기가 되었음.

- 즉,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기본 질서였던 "무력에 의한 국가안보" 개념을 인간중심의 "인간안보" (human security)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인류역사상 최초로 "인간우선"의 국제질서를 시도할 수 있는 전기를 제공하였으며, 탈냉전후의 새로운 세계질서 형성에 있어서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였음.

(우리의 사회개발정상회의 참석평가)

o 세계적 문제에 관한 국제회의에 최초로 우리 대통령이 참석, 우리 국력에 상응하는 국제협력 확대 정책을 전세계에 천명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중요 국가의 하나로서 우리의 위치 공고화와 함께 국제적 책임을 분명히 하는 우리 외교의 일대 전환점을 마련하였음.

o 우리 대통령께서 개별정상회담, 13개국 국가정상 초청 만찬회동 및 정상회의 덴마크여왕 주최 만찬 등을 계기로 다수국가 정상접촉을 통한 정상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치와 역할을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외교의 지평확대 및 위상을 제고하고, 또한 안보리 진출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 여건을 마련하였음.

o 이번 사회개발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제 우리나라도 그동안의 축적된 국력을 바탕으로 국제적으로는 수혜국의 입장에서 빈곤국가를 도울 수 있는 지원국의 입장으로 국제적 위상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음.

2. 후속조치

o 정상회의 결과에 따라 다양한 후속 활동들이 기대되고 관련 국제회의 개최도 예상되는 바, 우리로서는 금년도 유엔 50주년 기념사업과 연계해서 이를 적극 유치하고자 함.

o 현재로서는 후속사업으로서 아래와 같이 청소년 회의를 유치할 예정임.
- 사 업 명 : 세계청소년대표자회의 (World Youth Leaders Conference)
- 시기 및 장소 : 95.5.30-6.3, 서울
- 주 관 : 유엔-한국정부 공동주관
- 관련부처 : 외무부, 문화체육부

o 또한 사회개발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국내적으로 금년을 "복지선진화의 원년"으로 삼아 범국민적 차원에서 사회복지를 한차원 높여 나가고자 함.
- 사회복지 관련 자원봉사활동 등 민간참여 활성화 도모

VII. 첨부자료

1. 코펜하겐 선언 및 실천계획
2. 김영삼 대통령 연설문(국·영문)
3. 서상목 보건복지부장관 연설문(국·영문)
4. 유엔사무총장 및 주요 각국고위급대표 연설문
5. 유엔사무총장 및 주요 각국정상 연설문

1. 코펜하겐 선언 및 실천계획